



리쇼어링에 따른 구미지역 대응방안



2020. 7.

리쇼어링에 따른 구미지역 대응방안

1 추진배경 및 목적

□ 리쇼어링 배경

-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그동안 생산거점 역할을 해온 중국 등 해외 현지의 인건비가 상승하여 해외생산의 이점이 약화됨에 따라 자국 제조업 부활을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복귀(U턴)를 추진 중
 - 과학기술의 적용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이 강조되어, 단순한 업무인 기자재의 제작과 시설물의 시공, 설치 등의 활동은 엔지니어링 활동에서 제외
- 2013년 8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U턴기업에 조세감면, 자금·입지·인력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 하지만 2012년 이후 지자체와 MOU 기준으로 총85개사가 국내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2020년 5월 기준 총 71개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복귀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대기업 U턴 사례는 현대모비스가 유일함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20.5.10)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리쇼어링 : 비용절감을 위해 생산과정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한 오프쇼어링(offshoring) 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생산과정을 옮기는 것

* 오프쇼어링: 생산의 일부를 국외에서 수행하는 생산방법으로 해외직접투자와 국외아웃소싱의 합

□ 국내유턴기업 지원제도

○ 지원정책 현황

주요 정책명	발표시기	주요내용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	'12.4월	제11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U턴기업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
유턴기업 지원 보조금 고시 시행	'12.7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U턴기업 지원 보조금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시행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법률 제정	'13.8월	해외 유턴기업의 조세감면, 자금·입지·인력 등 다양한 지원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18.11.	유턴기업 대상 범위 및 지원 확대
조특법·고용보험법·보조금 고시 등 인센티브 관련규정 개정	'19.09.	유턴기업 선정요건 완화 (축소 기준 및 사업장 동일성 인정요건 등)
	'19.12.	유턴기업 지원대상 확대 및 국·공유재산 입지지원 강화 등

- *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국내에서 신설·증설하는 기업을 의미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참고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개관

구 분	항 목	현 행	개 선																		
① 유턴기업 인정범위 확대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	해외사업장 50% 이상 축소	25% 이상 축소로 완화																		
	대상업종 확대	제조업만 지원	지식서비스업 추가																		
	생산제품 범위 확대	해외와 동일한 세분류(4단위) 제품 국내생산시 유턴 인정	세분류(4단위) → 소분류(3단위)로 완화																		
② 인센티브 강화	입지·설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①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②타당성평가 60점 이상	①20인 이상으로 하향 ②타당성평가 기준 보완																		
	입지·설비보조금 담보부담 완화	보증보험증권 발급기관 독점 → 高보험료+현금예치 요구	담보수단 다양화 * 은행권에서 현금예치 요구 없는 지급보증서 발급																		
	입지·설비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대기업</th> <th colspan="2">중견·중소기업</th> </tr> <tr> <th>청산·양도</th> <th>축소</th> <th>청산·양도</th> <th>축소</th> </tr> </thead> <tbody> <tr> <td>x → ○</td> <td>x → ○</td> <td>○</td> <td>x → ○</td> </tr> </tbody> </table>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청산·양도	축소	청산·양도	축소	x → ○	x → ○	○	x → ○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청산·양도	축소	청산·양도	축소																	
	x → ○	x → ○	○	x → ○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확대	1년	2년으로 확대																		
	법인세·관세 감면대상 확대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th> <th colspan="2">대기업</th> <th colspan="2">중소·중견기업</th> </tr> <tr> <th>청산·양도</th> <th>축소</th> <th>청산·양도</th> <th>축소</th> </tr> </thead> <tbody> <tr> <td>법인세</td> <td>○</td> <td>x → ○</td> <td>○</td> <td>○</td> </tr> <tr> <td>관세</td> <td>x → ○</td> <td>x → ○</td> <td>○</td> <td>○</td> </tr> </tbody> </table>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청산·양도	축소	청산·양도	축소	법인세	○	x → ○	○	○	관세	x → ○	x → ○	○	○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청산·양도	축소	청산·양도	축소																	
법인세	○	x → ○	○	○																	
관세	x → ○	x → ○	○	○																	
농어촌특별세 감면	외투, 지방이전만 감면	유턴기업도 감면																			
입지 지원 강화	산업단지 입주 우선	국·공유지 사용 특례, 임대공장 지원 등 추가																			
국가 정책사업 참여 우대	-	유턴기업 우선 지원 (정책자금, 스마트공장 등)																			
③ 지원체계 간소화	지원 절차 및 서류 간소화	각 지원제도 개별신청·개별심사	신청·심사 일원화 (원스톱 지원데스크)																		
	신청기한 간소화	보조금 신청을 위해 11개 기한 준수 필요	3개 기한 폐지 3개 기한 연장																		
④ 유턴기업 유치활동 강화		· 해외진출기업 D/B 구축 및 정비(코트라-수은 협업) · 제도개편 홍보																			

□ 일본

○ 추진배경

-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내각은 '잃어버린 10년'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 차원
- 아베 내각은 장기간 경기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 엔고로 위축된 제조업 활성화 차원에서 U턴지원정책 추진

○ 목표 및 주요내용

-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활동의 일환으로 자체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갖고 U턴기업의 국내 유치정책을 시행
- 고이즈미 내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및 특구제도를 핵심적으로 추진, 아베내각은 법인세율 인하, '부흥특구' '전략특구'를 지정하여 기업U턴 촉진시책 추진
- (리쇼어링·투자유치) 국내 복귀 지원(건물구축, 설비투자 등) → ('20년 추경안 2,200억엔)
- (생산 다변화) 해외생산 거점 다원화(설비투자, 실증사업, 타당성조사) → ('20년 추경안 235억엔)

○ 경제적 성과

- 2014년 중국에서 274개 기업이 철수
 - * 중국의 고임금과 납기 지연 등으로 2009년 이후 중국 생산시설의 일부를 일본의 국내 공장으로 이관하는 경우가 많아짐

[일본 기업 리쇼어링 사례]

기업명	원생산지	주요내용	비고
파나소닉	중국	가전 생산라인 중국에서 이전	중국의 생산량의 절반 본국서 생산
NEC	중국/대만	노트북 생산라인 중국·대만에서 이전	연간 160만대 본국서 생산
혼다	베트남	오토바이 생산기지 베트남 등에서 이전	신규투자액 : 300억엔

□ 미국

○ 추진배경

- 1990~2000년대까지 미국 제조업체들의 오프쇼어링 심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과 일본에서 고용 감소 영향이 적었다는 점에서 제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

○ 목표 및 주요내용

-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국가 기간산업인 제조업의 재진작을 위해 해외진출 미국 제조업체를 본국으로 유치해 국내 생산능력 강화와 첨단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오바마 행정부) 2009년 제조업 부흥을 위한 로드맵 제시를 시작으로 2010년 『제조업 증강법』 (Manufacturing Enhancement Act of 2010) 제정 등 리쇼어링 정책 추진
- (트럼프 행정부) 미국기업에 대한 강제적 정책수단과 더불어 법인세율 인하(2018년 35%→21%), 해외공장 생산제품의 미국 역수출에 35% 관세 부과 등 적극적인 리쇼어링 및 외국기업 유치

○ 경제적 성과

- 2015년 제조업 일자리가 2000~2003년 연평균에 비해 약 400%이상 늘어난 반면, 오프쇼어링은 75% 감소
- * 지난 5년간(2011~2015) 리쇼어링 추진으로 미국내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0년 1,408.1만 명에서 2015년 1,533.7만 명 연평균 2.2% 증가, 실업률은 2010년 9.6%에서 5.3%(2015년)로 4.3% 감소

[미국 기업 리쇼어링 사례]

기업명	원생산지	주요내용	비고
Ford	멕시코	픽업트럭 제조공장, 미시간·오하이오로 이전	총투자액 : 160억 달러 일자리 창출 : 약 2000개
Caterpillar	일본	굴착기와 트랙터 제조라인, 텍사스·조지아로 이전	-
General Electric	멕시코	냉장고, 온수기, 세탁기 제조라인, 켄터키 Louisville로 이전	총투자액 : 10억 달러 일자리 창출 : 약 1300개
Apple	중국	2004년 이후 9년 만에 중국 생산시설, 미국으로 이전	총투자액 : 1억 달러

□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 및 재편

○ GVC 지형도의 재편

◇ 코로나 19 등 글로벌공급망 충격 → 비교우위 등 전통적 GVC 전면변화

전통적 요인	GVC 충격요인	대응 움직임
비용효율(임금비교 우위)	미·중 무역분쟁	Reshoring·첨단산업 유치
시장접근(지리적 우위)	보호무역 부활	GVC→RVC
국제규범(무역 자유화)	코로나19(이동제약)	다변화
	국가 Risk(신뢰+안정)	Untact+디지털화

○ 세계 GVC 참여율의 하락 추세

- 통상환경 변화, 리쇼어링 확대 등에 따라 주요 국가·기업들은 자국 중심의 GVC* 재편을 추진했으며 글로벌 GVC 참여율은 2011년 이후 지속 하락 중

* 글로벌 가치사슬이란 상품과 서비스 설계, 유통, 사용 그리고 폐기에 이르는 전 범위의 기업 활동이 운송 및 통신의 발달로 세계화되는 것을 의미

- ThomasNet에 의하면 산업재 바이어 72%가 공급망 비용 절감, 환리스크 회피를 위해 수입 등과 같은 글로벌 소싱보다는 로컬소싱을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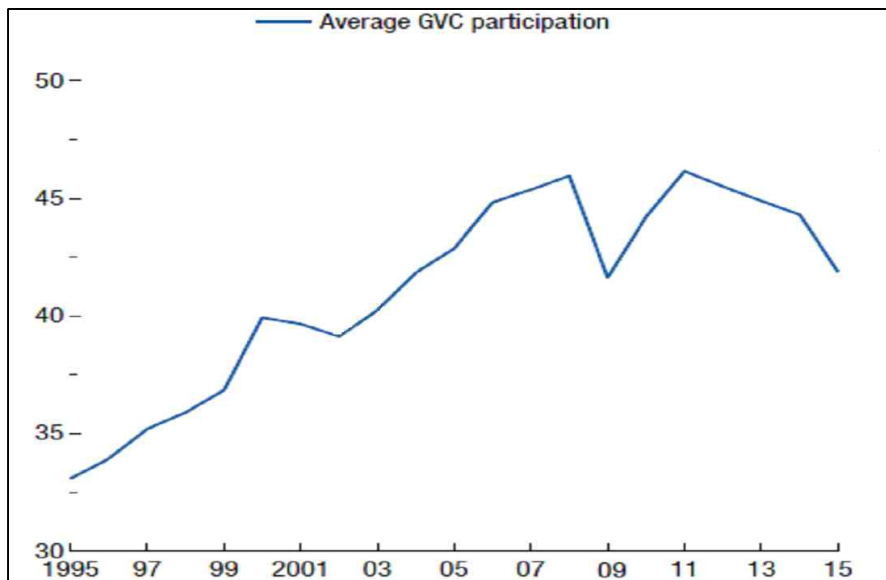
○ 중국의 내수부양(Inside China), 주요국 리쇼어링 확대 등으로 GVC가 약화

- 중국은 '15년 이후 조립·가공 중심에서 기술고도화를 통한 중간재 국내 생산으로 패러다임 변화 추진
- 독일 제조기업 해외생산 비중은 '06년 15%에서 '09년 9%, '12년 8%로 하락하였고 '06년 이후 매년 조사기업의 2~3%는 본국으로 회귀

○ 4차 산업혁명과 기술 발전은 GVC 변화를 더욱 재촉하고 새로운 소재와 부품의 공급구조가 형성되면서 기존 GVC도 재편

- 스마트 공장은 생산비용의 절감 뿐 아니라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대량 맞춤형 생산으로 모든 가치사슬 활동의 부가가치 제고

- 전기차·수소차 확산으로 자동차 원자재나 부품조달 구조가 변화하고, 수소사회는 에너지, 항공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조달구조 형성
 - 자동차 소재 비중 : (철강) '10년 77% → '35년 40%, (전자부품) '20년 35% → '30년 50%(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9.09)
- 세계 주요국은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해 노력 중
 - (미국)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북미지역 제조기지, 미국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
 - * 미국내 철강공장 가동률(73% → 80%), NAFTA 자동차 부품 사용 비율(62.5% → 75%) 등을 높이고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
 - (중국) 자국 완결형 가치사슬인 홍색공급망(Red Supply Chain)을 구축하여 핵심부품과 소재 자급률을 '25년까지 70%로 제고할 계획
 - (일본) 아세안 지역에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CPTPP)을 통해 아세안 지역 입지를 더욱 공고화
 - * '60년대 이후 태국 등을 자동차 생산기지 거점으로 설정하고 부품기업과 생산시설을 구축하면서 아세안 자동차 시장 독점
 - (독일) 제조업 전반을 스마트化하여 저임금에 강점을 지닌 개도국과 생산비용 격차 해소 → EU 지역 내에 GVC 허브로서 위상 강화



[세계 GVC 참여율(UNCTAD)]

□ ICT를 통한 제조업 변화

○ 저부가가치노동의 자동화

- 자동화 기술의 확산에 힘입어 저임금 노동력을 통해 이루어지던 저부가가치 노동의 기계대체가 진행 중
 - * 자동화 기술 확산은 저임금 노동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전망
-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달리 작업지시가 용이하고 도입비용이 낮은 협동로봇의 도입은 사람의 수작업에 의지했던 저부가가치 공정들이 자동화로 변화
 - * 협동로봇은 기존 산업로봇과 달리 안전펜스 없이 작업자와 로봇이 같은 공간에서 협업하는 새로운 형태의 로봇

○ 현장노동자의 능력강화 및 업무환경 개선

- 제조현장노동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작업자가 고부가가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 활용
 - * AR/VR기술을 활용한 디바이스는 작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작업자의 오류를 줄이고 전문성을 제고

[증강현실의 제조업 활용유형]

구분	내용
현장 작업지원	현장작업에 필요한 메뉴얼 및 작업에 필요한 실시간 정보를 디바이스를 통해 작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	장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증강현실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장비의 상태를 쉽게 파악하도록 지원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를 AR/VR 디바이스를 통해 제공
원격 유지보수	현장작업자의 수준을 넘어선 유지보수가 필요할 경우, AR 글라스 등을 통해 현장정보를 외부 전문가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조치사항을 전달받아 유지보수 수행
작업자 교육 훈련	보다 현실적인 이미지와 전문화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업자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제공

○ 스마트 생산기술(스마트 팩토리)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생산단가 절감

- 스마트 생산 설비의 채용이 해외에서의 생산 이점(저임금, 시장접근 등)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생산비를 절감하게 될 경우 리쇼어링을 촉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 개도국의 인건비 상승이 기본적인 동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스마트 생산기술의 적용은 실제 리쇼어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 스마트 생산기술이 리쇼어링의 실현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부각

[리쇼어링 이후 스마트 공장 도입에 따른 비용 절감 사례]

기업	국가	내용
Global Foundries	미국	- 2006년 뉴욕주 말타에 최신 실리콘 웨이퍼 공장 설립을 조건으로 뉴욕주로부터 공장 설립에 드는 비용 중 14억 달러를 청구비용 보전의 형식으로 지급받음
NCR	미국	- 인건비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2010년 주력제품인 ATM 기기 생산을 중국, 인도, 헝가리에서 조지아주 공장으로 복귀 - NCR의 복귀를 위해 조지아주는 조세감면 혜택도 1,500만달러 상당의 고용 및 R&D 보조금, 고용된 인력에 지불되는 임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등 제공
아디다스	독일	- 저임금활용 목적으로 중국 및 베트남에 대다수의 운동화 생산라인을 가지고 있으나, 2017년부터 독일 안스바흐에 스피드 팩토리 설립 - 3D프린팅, AI 로봇, IoT 기술, 센서 기술 등을 도입해 고객 맞춤형 운동화 생산기간 감축 및 원가 절감 효과 발생
Kusmi	프랑스	-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 및 모로코에 공장을 운영했으나, 프랑스 항구도시 Havre로 자사 공장을 이전하는 리쇼어링을 통해 100% 프랑스산 제품임을 강조하는 마케팅 추진 - 공장 자동화를 통해 모로코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비 절감 중

- GVC 변화에 대비한 유턴기업 전용 단지 조성
 - 현재 분양 중인 5공단을 활용, 해외로 이전했던 전자산업 분야 등의 유턴기업을 구미국가 5단지로 집적화
 - 유턴기업 전용 스마트팩토리화 지원 및 근로자 공급체계 구축
 - 구미지역내 산업별 밸류체인 완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 지원
- 지역 미래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한 구미형 패키지 발굴
 - 포스트 코로나 유망기술 및 한국형 뉴딜 정책 등 디지털 전환과 지역의 미래산업 정책과 연계 가능한 기업 유인책 마련
 - 지역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합을 통한 지역 특화형 제조서비스 유망 업종 유치
 - 지역 대기업(삼성전자 등) 전속관계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
- 지역 해외진출 기업 대상, 명확한 타깃 국가 및 업종 설정
 - 구미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GVC), 시장, 기술보호, 중간 공급망 등을 고려한 명확한 타깃 업종을 중심으로 유치 전략 수립 및 구체화
 - 해외 진출 제조업 중 국내로 복귀 시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주력산업인 전기전자 업종 등을 주요 타깃 업종으로 선정
-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
 - 코로나 19 확산으로 영업시간 단축, 부품조달 차질 등을 경험하면서 노후산업단지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구미지역 공장 자동화 수준은 다소 미흡
 - * 구미지역의 스마트제조 수준 분석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53.6%가 제품취급, 공정설비 운영, 생산정보 취합 등을 수작업에 의존, 스마트제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고 투자시 이익에 대한 확신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
 - 지역 노후산업단지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성공적인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의 자동화 비율을 높이는 노력 필요
 - * 스마트제조 전환 및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통해 제조공장의 국내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역내로 유인함으로써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